

124 EU「AI법」

EU AI Act

AI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EU의 AI 법률

- 사회적 위험도 기반으로 AI를 분류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체계안전성·기본권·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범

● AI법이란?

EU 「AI법」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 AI 규제법입니다. AI가 행정·금융·의료·치안 등 공공성이 큰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오작동과 편향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EU는 모든 AI를 동일하게 규제하기보다는,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GDPR·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기존 디지털 규범이 강조해 온 인권·책임·투명성 원칙을 AI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며, EU가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AI법의 주요 내용

AI법은 AI 시스템을 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다른 의무를 적용하는 위험 기반 규제를 채택합니다.

- 금지 AI: 소셜 스코어링, 광범위한 실시간 감시처럼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차별금지, 민주주의 및 법치와 같은 EU의 기본 가치를 위반하는 시스템으로, EU 전역에서 개발·배포·사용이 전면 금지
- 고위험 AI: 생체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 필수 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사용될 때, 데이터 품질 관리, 위험 평가, 기록 유지, 인간 감독, 출시 전 적합성 평가 등 높은 수준의 규제 적용
- 제한적 위험 AI: 비교적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정한 투명성이 요구
- 최소 위험 AI: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비교적 낮은 위험성을 지녀 규제 부담을 최소화

이러한 구조는 위해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저위험 영역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EU의 균형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 AI법의 의의

AI법은 AI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법적 틀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실상 따라야 하는 기준이 되면서 “EU식 규범”이 국제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 기반 접근을 통해 혁신을 전면적으로 막지 않으면서도, 고위험 분야에 대한 책임성과 안전성을 제도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고위험 범위 설정의 적절성,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범용 AI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처럼 세부 쟁점은 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AI 법은 향후 각국이 AI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 참고하게 될 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